

## 전국 세무관서장 초청 특강

대통령은 국방·치안·경제와 함께 갈등조정이 큰 역할입니다.

국정원·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독립시키면 무슨 힘으로 국가를 끌고 가겠다고 하느냐고 한다면 도덕적 신뢰로 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도덕적 원칙과 긴장, 그리고 도덕적 절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 수준을 밀고 나가겠습니다.

인사권은 공정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적재적소와 가장 효과적인 인사에 미치지 못했지만, ‘청와대 인사위원회 등이 공정하냐’고 물으면 ‘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 각 부도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국가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고 공직사회 역량이 최고수준이 되도록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5년간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해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통치권을 위임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감사할 것이며 각 부처의 공식·비공식 개혁 주체를 만들어 긴밀한 협조 속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가는,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희망의 시대로 가는 개혁세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문화를 개혁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5년간 국가 개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개혁을 외쳤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근본의 문제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양식인 문화를 개혁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향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되었습니다. 한·미관계도 안정되어 경제 외적인 요소는 해결됐습니다. 금융시장의 위기라는 카드채·SK글로벌 문제 등도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게 안정됐고, 투신사 1~2개의 부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남았습니다. 결단력있게 위기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이 투자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을 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지방분권을 통해 역동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겠으며 주어진 권한만 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사회로 갑니다. 검찰, 국정원, 국세청에서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 안오니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권력기관이 청와대로부터, 적어도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 세우겠습니다.

정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부동산이 한풀 꺾였습니다.